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2. 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**英 경찰, 메신저 암호화 시민 안전 위협 우려**
 - 1.31 英 사이버경찰국장은 페이스북이 'WhatsApp' 메신저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까지 암호화하려는 계획은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법집행 기관의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
- **佛,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 위협고조 경고**
 - 2.3 현지언론은 “정보당국이 대테러회의(2.1)에서 프랑스군 작전지역인 사헬지대內 극단주의자들의 유럽 본토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”고 보도
 - * 당국은 “알카에다가 보코하람과 연계, 西아프리카에서 세력 확산을 시도중” 이라고 설명

미주

- **美, 극단주의자에 의한 국내 테러 위협 경고**
 - 1.27 美 국토안보부는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 교체에 반대하거나 음모론에 영향을 받은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도모할 수 있다며 테러 위협 경고(1.27~4.30)를 발령
 - * 특히,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의사당 점거 사태(1.6) 이후 더욱 대담해졌다고 지적
- **美, 극우성향 증오단체 온라인으로 활동 거점 이동**
 - 2.1 美 남부빈곤법률센터는 자국내 극우성향의 증오단체가 감소중인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가 트위터·페이스북 등의 접근이 어려워지자 암호화된 SNS로 거점을 옮겨 파악이 어려워진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
 - * '18년 1,020개 > '19년 940개 > '20년 838개로 감소

○ 美, 테러 위협 및 민심 불안으로 총기 판매량 급증

- 2.2 현지언론은 민주당 정권의 총기규제 정책과 코로나19, 의사당 난입사건 등 민심 불안으로 인해 지난해 총기 판매량이 '19년 대비 60%나 급증하였으며,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회도 3,960만건 이상이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日·越 등, 中의 무기 사용 허용 해경법 시행에 강력 반발

- 2.1 中 정부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무기 사용*을 규정한 해경법을 시행함에 따라 日·越·比 등 주변국이 반발하는 가운데, 영유권 문제가 지속되는 해역에서 무력사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충돌 우려
- * △대테러 작전 △폭력사태 발생 △법 집행기관의 선박·항공기가 공격 받는 경우

○ 파키스탄, 카라치市 테러 위협 경고 발령

- 2.2 대테러당국은 외국 테러단체가 카라치 주요시설을 겨냥한 차량 폭발물 공격을 준비중이라는 첩보를 입수, 관계기관에 경계강화 조치
- * 현지 우리공관은 교민(카라치 155명 거주) 대상 관련내용 전파 및 신변유의 당부

중 동

○ 이라크, ISIS 고위 지도자 사살 발표

- 1.29 「무스타파 알카드히미」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ISIS 사령관 겸 副 칼리프(이슬람 神政일치 지도자)를 자처한 「아부 야세르 알이사위」를 사살했다고 발표
- * 이라크 정부는 지난 21일 수도 바그다드 연쇄 자폭테러 이후 ISIS 진당 소탕 작전 中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에 납치된 소녀 일부 탈출

- 1.29 CNN은 무장·테러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나이지리아 소녀 중 일부가 7년 만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으며, 이들은 현재 자국 軍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
- * 보코하람은 지난 '14년 나이지리아 치북 타운의 기숙학교에서 여학생 276명 납치

캐나다 퀘벡市 발생 모스크 총기 난사 테러

- '17.1.29. 20시경 캐나다 퀘벡市 소재 모스크를 침입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
 - 범인은 해골 무늬가 그려진 가면과 검은 망토를 걸친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자동소총으로 무차별 난사 자행
 - 당시는 저녁 예배 시간대로 신도들이 운집해 있어 다수 인명피해 초래
-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용의자인 프랑스계 캐나다人 「알렉산드르 비소네트」 (당시 27세)를 체포하고, 1급 살인혐의로 기소
- 조사결과, 同人은 평소 美 「트럼프」대통령을 존경하고 다문화주의 반대 단체를 지지해온 극우성향의 인물로 밝혀졌으며 관련 사건은 최종적으로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'외로운 늑대'형 테러로 결론
- 「트뤼도」 캐나다 총리는 同 사건을 '비열한 테러 행위'라고 비난하고 "이 같은 비이성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"고 강조
 - 「쿠이아르」 퀘벡州 장관도 "야만적 폭력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"면서 관련 사건을 규탄하고, 부상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표시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- (목 표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 ('04. 4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
- (조직규모) 약 14,000~18,000명 추정('19.8, 美 국방부) * 전성기 최대 약 7만명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'19.3월 시리아內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- (주요테러) ① '15.11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
 ② '17.12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
 ③ '19.4 스리랑카에서 ISIS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, 부상 500)